

니르바나필 봉축음악회 ‘부처님을 노래하다’를 보고



박종린
니르바나필 후원회장
불력회 대표이사

부처님은 일체 존재의 근본이시고 참 생명이다. 근본이 변할 수 없듯이 참 생명 또한 변함이 없다. 참 생명은 나고 죽음이 없기에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귀의함으로써 귀의하는 자가 참 생명의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부처님의 화현(化現) 아님이 없기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만큼 효과적이고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달리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14년 전에 창단된 불교계 유일의 교향악단인 니르바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나필)의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음악회가 ‘부처님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4월 24일 저녁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니르바나필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

하여 봉축음악회를 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이고, 음악이 얼마나 전법(傳法)의 효과적인 수단인가를 일깨워주는데 있다. 음악이 배제된 전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현재의 한국불교는 음악, 특히 서양음악은 경시하는 정도를 넘어 거의



2013년 봉축을 맞아 열린 니르바나필의 음악회는 국악과 산불가, 서양음악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무시하는 수준이나 다름없다. 사실 무시가 아니고 무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미 세계인의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은 서양음악이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외면하고서 제대로 전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기 때문이다. 니르바나필은 지난 3년 동안 법구경을 소재로 한 교성곡(交聲曲) ‘칸타타 담파파다’를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작을 기획하고 연주하기에는 니르바나필 단독의 역량으로는 힘이 겨운 일이었기에 그 열렬

결같은 반응은 열화와 같은 뜨거운 성원 그 자체였다. 쉬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불자들이 음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감동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불자 청중들이나 불자 음악인들이 서로 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불교가 지난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서양적인 기법과 악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안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고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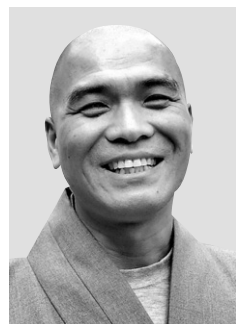
음악이 지닌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과,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의 심성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음악이라는 선율에 담아 저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니르바나필 같은 전문 악연주단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발언대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일부 개신교계의 주도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실 의원이 철저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신교계의 상식 밖의 반대 운동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불교계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



최수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1948년, 유엔은 12월 열린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인권의 가치가 어느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세

상에 알린 것이다. 인권 선언의 제2조를 살펴보면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렇게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들어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제정하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이다. 이 법을 반대하고 철회한 일부 세력에게 ‘차별을 정당화 하자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동성애 논리도 맞지 않다. 이성애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성적 소수자들이 계몽돼야 한다는 논리는 곧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들 역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들과 같이 살려고 왜 노력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하게 하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 종교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문제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가 풀어졌으면 한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계도 개신교 국가인 서구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보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불교계 참여 필요



박광서 서강대학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차별 금지법이 좌절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의결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

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교계에 내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일부 개신교계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 요소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그간 대중에게 행했던 ‘불신지옥 예수천국’과 같은 공격적 선교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상정됐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주는 나라는 개신교 국가인 미국 아닌가.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신교가 벌인 상식 밖의 몽니에 백기로 투항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상대방의 몰이해는 버젓이 존재한다. 당장 얼마 전 비구니 스님이 도넛 가게에 들어가다 한 행인에게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왜 스님이 들어가느냐’며 제지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하세계의 고성 선교와 조계사 앞으로 ‘불신지옥’ 십자가 매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개신교의 몽니로 차별금지법이 좌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제정을 바라는 곳보다 제정을 반대하는 곳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겪는 차별을 사회 바깥의 문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문제가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앙선교회 등 불교계 단체가 나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자는 것도 필요하다. 바로 선 ‘인권세상’을 불교가 앞장서 선도하길 바란다.

社說

이치노헤 스님 방한, 한일관계 해법 찾자

일본 조동종 운소지 주지 이치노헤 소고 스님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방한했다. 주요 목적은 자신의 저서인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의 한국어판이 발간됐기 때문이었지만, 스님은 답사와 강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의 일정을 취재하면서 보인 언행들을 보면 과격적이다. 아베 수상이 대리인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뻔뻔스러운 짐승”이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우익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는 우려에 “부처님이 곁에 계시니 두렵지 않다”고 호기롭게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본 불교의 과오를 연구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참회”라는 이치노헤 스님의 원력은 절실함마저 느껴졌다.

사실 현재 한국·일본 할 것 없이 역사에 관심을 가진 젊은 세대는 적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수준이다. 이치노헤 스님

은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에 바탕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비틀어져 버린 한일 관계를 풀려면 열쇠라는 것이다.

특수성이 적지 않은 한일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중앙 정부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풀뿌리 교류가 중요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교류가 활발하고 올바르게 정부 차원의 교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한일 정부도 불교 종단들도 이들의 활동을 살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불교교류협회 등을 통해 전지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이다.

불교계의 색다른 자살예방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오래다. 종교단체를 비롯해 각 시민단체에서도 자살을 막을 예방 대책을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라는 게 거의 대응소이다. 심신의 안정과 심리상담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교상담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해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상연된 불교심리치유극 ‘나도 살고 싶었다’는 자살 예방책중 색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살고 싶었지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던 여중생 지혜의 이야기가 즉흥극 형태로 무대에 올려졌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절망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즉흥극 형식인 심리극(psychodrama)은 상담자가 등장인물인 내담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어 자신의 삶을 생각나는 대로 연기 하게해 억압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관계적 문제를 탐구하는

형식이다. 이번 심리치유극을 기획한 마음숲심리상담센터 박희석 소장은 실제 내담자 대신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했다. 주인공인 지혜를 중심으로 둘러싼 학교와 가정환경에서 겪는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해 심리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0번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자 비극이고 삼천년 것이다. 자살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할 유가족들, 그리고 사회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중대한 과제다. 이번 불교심리치유 연극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이번 답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어 자신의 삶을 생각나는 대로 연기 하게해 억압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관계적 문제를 탐구하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홍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고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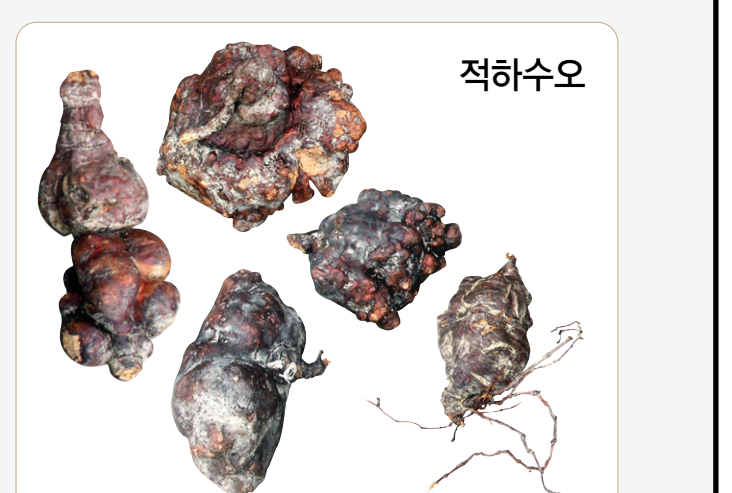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